

여성 당뇨병 환자의 비뇨기 질환

이유식 / 성균관의대 삼성재일병원 비뇨기과



여성 당뇨병 환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비뇨기 질환

당뇨병 환자에서의 방광기능 이상 및 배뇨장애는 방광으로 가는 신경전달이 저하되어 나타나며 당뇨병의 유병기간이 길고 당뇨병 조절에 실패한 중년여성 또는 노년층 환자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상은 서서히 나타나며 진행되기까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증상은 환자가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변이 차도 소변이 마렵다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지연 등이 있다. 나타나는 주 증상은 소변횟수의 감소, 소변줄기가 여러 번 끊어지고 소변줄기가 약하며, 소변 볼 때 금방 나오지 않아 힘을 주어야 하며 배뇨후 시원치 않고 소변이 남아있는 목직함 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들의 집합체를 당뇨성 방광병증이라 한다. 증상이 악화되면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위해 몇 번 일어나는 야간빈뇨,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어려운 절박뇨, 소변이 자기도 모르게 짙금거리며 나오는 요실금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여성에서는 분만출산으로 인하여 복압성 요실금이 흔히 동반되며 외부 생식기인 질로 방광, 자궁직장 등이 빠져 나오는 골반탈출증이 동반되어 그 증상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다.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 질환은 신체적, 정신적인 영향을 주며, 가정과 사회활동 뿐만 아니라 성생활에까지 지장을 초래한다. 요실금 증상을 가진 환자의 60%가 외출을 삼가고 있으며, 45%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피하고, 50%정도가 성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실금 때문에 창피하다고 하였고, 다음으로 냄새가 나는것이 불편하다고 한다. 이같이 요실금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의사를 찾지 않는 것은 요실금을 정상적인 노화현상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거나, 요실금이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거나, 수술치료 받기가 겁이 나거나 실패할 수 있다고 믿거나, 자신의 증상이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의사에게 진찰받기가 부끄럽고, 치료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자신 스스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요실금은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등의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성인여성의 경우, 특히 공공시설에서의 화장실 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화장실 사용시간이 길어서 자신의 순서가 오기까지 줄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절박성 요의가 심한 여성은 그때까지 참지를 못하고 소변이 새게 되므로 공공장소의 모임을 피하게 되거나 수분섭취를 극도로 제한하여 요실금을 억제하려고 한다.

또한 직종의 특성상 일정시간은 작업에 매달려야 하는 사람의 경우(교사, 웨이트리스, 간호사, 비서, 조립공 등) 자신의 방광용적보다도 작업시간에 맞추어 소변을 볼 수밖에 없어서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치료방법

요실금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삶에 대한 여유를 가질수록 이 질환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질환이다. 보다 나은 삶의 질적인 여유를 누리하고자 하는 요즈음이라면 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뇨증상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

당뇨병 환자의 방광기능 이상은 초기에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한다.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 발생으로 인하여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의 목표는 원활한 배뇨와 함께 증상의 완화, 감염의 예방, 신장기능의 보존 및 소변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치료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요역동학 검사라는 컴퓨터를 이용한 방광기능분석 분석에 기초하여 치료를 한다. 치료는 물리치료, 전기자극치료, 자기치료, 약물치료 등과 같은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 치료법들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빠른 효과를 원하는 환자는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기 쉽지가 않으나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치료를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배뇨습관 유지하기, 방광을 자극하거나 소변량을 증가시키는 음식이나 약물의 사용을 조절하기, 증상이 있을 때는 조기치료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비뇨기과 의사를 찾아 상담하고 알맞은 치료를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